

# 해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속도

### 지역 인프라에 지능정보기술 접목... 국토부, 도시계획 승인

### 행정·교통·복지 등 32개 서비스 발굴... 2027년까지 추진

해남 특화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해남군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국가 스마트 도시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인프라의 지능정보기술 접목을 통한 도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도시계획을 2023년부터 5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땅끝에서 다시 그린 스마트 도시'의 새로운 시작, 리스마트 해남(RESmart

Heanam)의 비전으로 제시됐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리졸브(REStolve, 농어촌 맞춤형·지역문제해결형), 리그로우스(RE-Growth, 지역산업진흥형), 리투어(RETour, 해남특화관광형), 리거버넌스(REGovernance, 도시운영관리형), 리스마트(RESmart, 스마트도시 대응형) 등 5대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군민 설문조사와 부서 면담을 통해 행정·교통·복지 등 주민수요를 반영해 32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했으며, 이 중 12개는 해남 특화형 서비

스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특화 서비스는 스마트 체육공원, 살아움직이는 공룡박물관, 해남 땅끝스마트 돌레길, 스마트 관광라운지, 솔라시도 스마트정원도시, 방구석 땅끝 여행-메타버스해남, 스마트 군수실, 해양스레기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매일시장, 모바일티 통합연계 솔루션 등이다. 군은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위해 공간별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해 32개 세부실행과제인 스마트도시서비스-인프라를 우선순위로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맞춤형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로 해남 특화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200억 투입 마늘·양파 농사 100% 기계화

### 농기센터서 발작물 기계화 간담회 내년부터 수매 시스템 시범 도입

신안군이 서남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파를 버처럼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100% 기계화를 추진한다.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군의원, 농협조합장, 유통업체, 생산자대표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안군 발작물 기계화 간담회' <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파-마늘생산자대표 등 8개 관련단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수년 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절박한 우려"를 전담했다. 양파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소득작물로 한때는 1500ha까지 재배됐으나 수입농산물과 가격경쟁, 일손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2022년 기준 802ha에서 생산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으로 자은면 등 3개 지역에서 양파, 마늘 수확 연시회를 통해 참여 농가들로부터 만족하는 일관기계화 기



를 정립했다. 신안군의 발작물 기계화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오랫동안 발농사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시달려온 고품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양파의 기계화를 위해 먼저 내년부터 시범으로 600여의 양파가 톤백(대형포대) 수매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203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 양파는 물론 마늘까지 벼농사처럼 100% 기계화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몽골 울란바토르서 '관광 도시 목표' 홍보

### '한국주간' 홍보부스 운영 드라마 등 미디어 홍보영상 상영 김 가공식품 판촉활동도 진행

목포시가 몽골의 수도 '붉은 영웅의 땅' 울란바토르에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목표, 미식관광 도시 목표'를 알리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울란바토르의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2023 한국주간' 행사에 참가해 몽골 국민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목포의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한국주간은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서 양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관광 성수기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몽골 국악공연, 한국국기원 태권도 시범, K-POP 콘서트 등이 펼쳐지고, 몽골 소재 한국 공공기관과 한국기업 등이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목포시는 대한민국 기초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관광홍보 특별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몽골에서의 K-콘텐츠에 대한 높은 인기와 열망을 고려해 목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실사 홍보사진으로 제작한 포토스팟을 활용 목포의 매



박홍률(왼쪽 두번째) 목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우호도시 몽골 울란바토르를 찾아 홍보부스를 열고 목포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김, 김밥김, 조미김, 김가루 등 김 상품을 비치해 수출 촉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바다와 섬에 대한 동경이 크고,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몽골 국민에게 해양관광도시이자 영화와 드라마 인기 촬영지인 목포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면서 "K-푸드로서의 높은 인기를 확인한 김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김 가공업체들의 몽골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 진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무주택 청년 최대 30만원... 읍·면사무소서 신청

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30일 간의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여름방학 필라테스 교실.

# 해남 청소년 열정 발산 '누림문화센터'

### 댄스 연습실·북카페 등 갖춰... 2년만에 이용객 5만명 돌파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가 개관 2년만에 누적 이용객 5만명을 돌파하며,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창출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개관한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1층 해남시네마, 2-3층을 청소년누림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군 단위에서 보기도 드문 최신시설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지역 청소년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부터 24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월 평균 이용자가 2100여명에 이른다. 넓은 공간과 거울, 음향장비를 갖춘 댄스 연습실, 각종 악기와 녹음시설, 매일 최신곡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노래방기가 있는 개인연습실, 밴드합주가 가능한 단체연습실, 3000여권을 보유한 북카페 등은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다. 청소년들의 쉼터 욕구정원을 비롯해 전통놀이와 보드게임, 네일아트, 족석사진 등 동아리

활동실에서 청소년의 놀거리, 즐길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도 인기다. 엔터테인먼트형활동, 미래사회형활동, 진로탐색형활동, 합창단과 중등밴드 특성화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정기강의와 방학 특강으로 마련돼 청소년들의 적성과 취미,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가을학기에는 쿡킹클래스, 제과제빵, 목공예, 웹툰그리기, 뷰티일러스트3급 대비반, 만만한요리, 네컷만화 등 중점프로그램과 방송댄스, 온앤오프, 메이크업분장, 네일자격증 대비반, 테라리움&가드닝, 3D펜 창의융합교실, 판타지이더, 토탈공예, 3D프린터로 생활용품만들기, 창의보드게임, 메타버스세상 VR코딩 등 활동 체험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오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9월12일부터 12월3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 삼호시장' 조성 주민 의견 수렴

### 주민공청회... 로컬푸드형·혼합형 특화시장 등 제시

영암군이 삼호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삼호시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공청회'를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주민공청회는, 삼호시장 입지와 기본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앞서 영암군은 삼호시장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삼호읍 시장 조성 적합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삼호주말장터 운영 성과분석 등을 내용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로컬푸드형 전통시장', 전통과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특화 물품이 공존하는 '혼합형 특화시장' 등을 삼호시장 기본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말에 소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한 '주말장터식'과 가까운 지역의 시장과 공존하는 '5일 시장 방식'의 운영방안도 제안됐다. 이외에도 ▲문화공연 등 볼거리가 풍성한 시장 ▲냉난방기 등 소비자 편의시설 완비 ▲목포·남악·해남·진도 주민 유입 여건 조성 ▲인근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시장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우승희 영암군수는 "삼호시장 조성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목포·남악 주민의 농·축·수산물 구매 수요를 조사해 삼호시장 소비자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입지는 주민 공감대 속에서 최적 장소를 골라 삼호읍민의 오랜 숙원을 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무안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교실'

### 몽탄면 사창리·일로읍 월암리 방문 4주간 교육

무안군 치매안심센터가 몽탄면 사창리와 일로읍 월암리를 찾아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과 '치매인식 개선 캠페인'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돼 이달 2일부터 주 2회에 걸쳐 4주 동안 치매예방교실을 진행했다. 무안군 평생교육을 통해 양성된 한글발성교육사가 강사로 채용돼 '뇌인지 교재 학습' '한글 발성 학습' '자음·모음을 활용한 시·지각 운동·체조' 등을 했다. 모든 참여자는 교육을 받기 전·후에 인지 선별

검사(CIST)와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SMCQ), 단축형 우울척도검사(SGDS-K) 등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일부 참여자들은 인지능력이 오르고 우울척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치매인식 개선을 홍보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